

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최근의 하락세는 2014년 가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10달러에서 50달러 안팎으로 반토막 날 당시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사실, 당시에는 국제유가와 더불어 폭락을 거듭했지만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적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 2015년 들어서는 나프타가 톤당 450달러 안팎을 형성한 반면 에틸렌은 1200달러에서 1400달러를 넘나들었고 PE나 PP도 1300-1400달러로 크게 떨어지지 않아 1/4분기에는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2/4분기에도 크게 나빠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4분기에도 나프타를 비롯해 높은 가격에 구매한 원료의 재고손실이 크게 작용했을 뿐 석유화학제품 자체의 스프레드는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가격이 PE나 PP 가격을 역전했거나 비슷했지만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고 대부분이 수직계열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판단할 때 석유화학의 수익성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톤당 400달러일 때 에틸렌은 중합코스트 300-350달러를 더한 700-750달러, 프로필렌은 600-650달러, PE는 에틸렌에 150달러를 더한 850-900달러, PP는 프로필렌에 150달러를 플러스한 750-800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이 폭락을 거듭했다고 하나 에틸렌 800달러대 후반, 프로필렌 700달러 수준, PE 1100-1200달러, PP 1000달러 수준을 형성함으로써 에틸렌, 프로필렌 뿐만 아니라 PE, PP도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의 수익성이 극히 악화돼 적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까 우려된다는 엄살은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수익률이 약간 낮아지고 있을 뿐 아직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단계라는 것이다.

문제는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40달러대로 폭락한 후 8월 말 다시 50달러를 회복함으로써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나 중국경제의 침체국면으로 볼 때 국제유가가 다시 40달러 수준으로 폭락할 것은 자명하고 이란이 원유 수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즈음에는 40달러가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나프타가 300달러 안팎으로 폭락하게 되고 에틸렌, 프로필렌에 이어 PE, PP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공급과잉이 극심해져 국제유가 및 나프타 폭락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까지 80% 수준으로 하락하면 적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주먹구구식 지레짐작으로 국제유가를 설정한 후 경영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 및 석유화학에 정통한 컨설팅기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세워 위기를 돌파함은 물론 제2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석유화학, 앞날이 걱정된다!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